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충남 공주시에서는

8~9월 허수아비축제가 열린다. 마곡사 가는 길에서 열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허수아비축제는 8월 31일까지 허수아비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다. 제작된 허수아비들은 9월 말까지 인근 들녘에 전시하고 9월중 우수작품도 시상할 계획이다. (041)840-2544

충남 천안 국립청소년수련관에서는

9월 8일 페가수스2차 승마교실을 개최한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승마교실의 참가비는 1만 원. 6일까지 인터넷 (www.nyc.or.kr)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준비물은 운동화 운동복, 우비 모자 개인상비약 등이다. (041)620-7793

대전 중구 한밭도서관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전시장 밖 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 미술관 (Small Art Museum)'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인간과 자연, 사회적 조형 세계'를 주제로 관람객들의 미술이해를 돕고 우리나라 현대 작가들의 조형성 이해와 미학적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들 총 40여점이 전시된다. (042)580-4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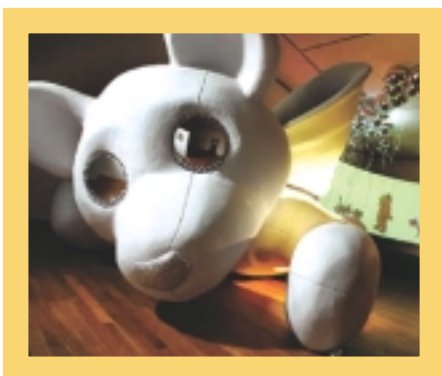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9월 16일까지 디지털 미술사체험전이 열린다. 문화예술회관 1전시실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8시 공개되는 디지털 미술사 체험전의 주제는 '한 시간에 배우는 서양미술 2만년전'. 일반인은 3천원, 학생은 2천원이다. (053)757-5443

원주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내 생태계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외래식물을 모니터링한 후 제거하는 '우리집에 왜 왔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월 28일까지 계속되는 모니터링 활동은 주로 나래가까살이,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무 등을 제거하게 된다. 주로 개회시기와 결실기에 실시한다. 고등학생 이상 참가할 수 있다. (033)732-5231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눈물방에서 만날 수 있는 눈물곰.



웃음방.

불관방.



'내 마음의 오아시스'.

가 모두가 공동으로 미술과 디자인 체험을 할 수 있게 꾸몄다. 기쁨의 감정은 웃음방에서 만날 수 있다. 노란색을 기초색으로 펼쳐진 웃음방은 그래픽 디자이너 이기섭, 건축가 강용상씨가 꾸몄다.

'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

내 감정은 무슨 색이지?

기쁨 슬픔 사랑 분노 평안. 이러한 감정들을 색깔로 표현하면 어떤 빛깔로 빛어낼 수 있을까? 국내 최초로 어린이의 다양한 감정을 기반으로 건강한 정서를 일깨우는 감정디자인전시가 서울 금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순수 국내 디자이너와 미술가, 어린이 교육 전문가와 출판계, 건축연극 등 문화예술계가 모여 다섯 가지 감정을 어린이를 위해 다채로운 문양과 형상으로 변주한다.

9월 9일까지 이어지는 어린이감정디자인전에서 어린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발산하는지 배우고, 학부모들은 내 아이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은 기쁨 슬픔 사랑 분노 평안 등 다섯 빛깔 감정방을 중심으로 꾸며진다. 마음 속 현상을 디자인과 미술의 접목을 통해 시각화해 감정 치유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8월 16일 오후 2시 금호미술관이 시골벽적

하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감정학교-화' 워크숍이 열리기 때문이다. 핑크빛 패드에 아이들이 누워 고무신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각 상황에 대한 화를 동작으로 표현한다. 팔을 흔들고, 다리를 들고, 손도 번쩍 들고, 고함도 지른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워크숍에서는 우선 아이들이 경험한 감정을 직접 듣고 움직임으로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다. 거친 나무토막과 사포로 메모꽃이를 만들면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나무를 매끈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배운다. 화가 날 때 혼자만의 공간을 가질 것을 고무신 선생님은 제안한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별이는 장난감방이나 장롱을, 지민이는 침대를, 시정이는 식탁 밑을 혼자만의 비밀 공간이라고 고백한다.

고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감정 학교', 아트 캔과 함께하는 감정치유 미술놀이 등에 이어 공연장작 집단 뛰다와 함께하는 그림자 감정놀이 워크숍이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어린이감정디자인전 2007 I design'의 전시장으로 발길을 돌려보자. 주제전시 '숨은 마음찾기'는 마음문의 열쇠를 손에 쥐고 미로 속에서 숨은 감정을 찾는 주제전시판이다. '숨은 마음찾기'는 참여작

생남은 제안한다. 워크숍에 참가한 한별이는 장난감방이나 장롱을, 지민이는 침대를, 시정이는 식탁 밑을 혼자만의 비밀 공간이라고 고백한다.

마음 속 현상을 디자인 · 미술 접목 시각화해 마음 치유 아이는 감정 해소 · 부모는 반응 방법 등 발견 기회 가져



주제 전시관은 감정에 대한 동영상과 함께 아이들이 미로찾기를 하도록 꾸며졌다.

진한 붉은 색으로 강렬하게 만들어진 불관방은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는 분노, 화에 집중한다. 타이포 그래픽, 설치미술, 그래픽디자인 등으로 꾸며져 화려함과 동시에 억눌린 감정의 터뜨림을 느낄 수 있다. 불관방에서 만난 유재영(양북초3)은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어서 재미있다"며 친구와 함께 안내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전시공간에 푹 빠져들었다.

부드러운 핑크색이 퍼도는 사랑방은 모든 감정의 치유와 나눔의 근원이다. 그래픽 디자이너 이상섭, 인터랙션 디자이너 이호섭씨 형제가 감각적으로 디자인했다. 엄마의 품처럼 편안한 포옹방은 평안의 감정을 나타내기에 자연에 가까운 초목으로 변신했다. 여섯 살 태영군과 두 살 유진양을 데리고 전시 나들이에 나선 이은영(서울 성북구 돈암동)씨는 "아이들이 뭔가 만져 마가뜨릴까 걱정할 필요없이 같이 전시회에 오니 너무 좋다"며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다고 기뻐했다. 태영군은 커다란 풍선들을 굴리며 "심장소리 같은 게 들려서 재밌다"며 환하게 웃었다. 부모 디자이너 방기호 유지현씨가 꾸민 포옹방은 엄마의 자궁을 형상화한 곳이다.

주말에는 각 감정방 디자이너와 아이들이 함께 만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외에도 모든 감정을 체험하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휴식방 '내 마음의 오아시스'는 전문가 선정 한 감정 치유 그림책 100권이 함께 한다. 바이올렛과 올리브그린으로 꾸며진 '내 마음의 오아시스'는 판지 스튜디오와 출판사들이 함께 공간 디자인에 나섰다. 저학년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고학년 친구들은 친구와 함께 감정 디자인의 세계로 탐험을 나서보자. www.idesignstoy.com

글=김지연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www.sungjongsas.co.kr

범종 명가 성종사

국내 최대 범종 밀랍주조공법으로 완성

8150관 초대형 범종 탄생

광주 민주의 종은 8150관(약 31ton)의 국내 최대 범종으로 성종사의 특이공법인 밀랍주조공법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광주 민주의 종 광리를 맡았던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설계공정연구소로부터 「종의 문양이 매우 아름답게 주조되었으며, 종 표면 및 몸체에는 부조결함이 전혀 없이 매우 깨끗하게 주조되었다. 또한 민주의 종의 진동, 음양을 분석한 결과 기본 고유진동수는 62.625Hz(low), 62.8125Hz(high)로 측정되었으며 이상적인 당좌위시와 실제 당좌 위시가 잘 일치하여 당좌 가진시 맥놀이가 잘 일어나,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으로 주조 되었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범종제작사에서 이제 세계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저의 성종사는 오늘날 인류 최고의 범종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聖鐘社 SUNG JONG SA

◆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공 장: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함곡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사이트: www.sungjongsas.co.kr / E-MAIL: sungjongsas@hotmail.com
 ◆ 대 표: 범종 원장성(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대한민국 명장)

광주 민주의 종(국내 최대)
(높이:4.2m, 직경:2.5m, 중량:8150관)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옥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